

종단 복지시설 대표 한자리에 모인다

복지재단, 10월12~13일 ‘시설장 워크숍’
불교복지 노하우 공유 “화합·소통의 자리”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불교사회복지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동안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종단 산하 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시설장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속에서 불교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종단 산하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시설장 24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스님이 ‘불교중흥과 사회복지’, 진수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흐름’을 주제로 각각 특강한다.

또한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스님이 ‘불교사회복지실천사례와 발전방향 모색’을, 박영숙 UN미래포럼 대표가 ‘미래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복지방향’을 주제로 각각 강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2시간동안 진행되는 리셉션인 ‘불교사회복지인 대회의장’ 시간을 통해 그동안 각자 쌓은

불교사회복지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설 대표들간에 화합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1회 다문화가족축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오는 9월 오전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우정충국공원에서 ‘제1회 다문화가족대축제’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문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문화가족과 비(非)다문화가족 500여 명이 참여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화합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축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보선스님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다문화가족을 격려하고 글쓰기대회와

사진공모전 시상식 등을 갖는 기념식과 함께 다문화가족한마당, 지구촌 문화한마당 행사로 진행된다.

지구촌 문화한마당 행사는 각 나라의 의상과 음식, 주거, 놀이문화 등을 체험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다. 또한 가족단위의 O·X퀴즈를 통해 한국생활과 문화를 배워보는 ‘우리가족 퀴즈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수여하게 된다.

특히 글쓰기대회와 사진공모전 시상식에서는 5~6가족에게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가족당 280만원 상당의 ‘모국방문지원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TV와 디지털카메라, 전자렌지 등 다양한 상품 및 상품이 전달된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bulgyo.com



경기도의회불자회 회원 10여명이 지난 9월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사진은 예방 후 실시한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의회불자회, 조계종 총무원 예방

총무원장 자승스님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당부

오는 10월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인 경기도의회불자회 회원들이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했다. 경기도의회불자회(회장 김종웅·의왕1) 회원 10여명은 지난 9월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김종웅 회장은 “지난 7월20일 첫 모임을 갖고 의회불자회를 창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총무원장 스님께서 창립법회에서 법문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경기도의회

불자회의 명칭도 지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총무원들을 대상으로 불자회 명칭을 공모하여 좋은 이름을 짓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에는 교구본사가 2곳(용주사·봉선사)이 있으니, 주지 스님들을 잘 모시면 불자회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바란다. 불교관련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길 부탁한다”면서 “종단도 경기도 의원 불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불자회 회원들의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과 고순자 경기도청 불자회장(여성정책실장), 윤석환 경기도의회 운영전문위원이 배석했다.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한 경기도의회 불자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김종웅 회장(의왕, 민주당), 김시갑 부회장(의정부, 한나라당), 천영미 간사장(안산 비례, 민주당), 권철승 의원(화성, 민주당), 장호철 의원(평택 비례, 한나라당), 김기선 의원(용인, 한나라당), 윤영창 의원(포천, 한나라당), 고윤수 의원(평택, 민주당), 손호성 의원(안산, 민주당), 홍정석 의원(양평 비례, 민주당), 이강림 의원(포천, 한나라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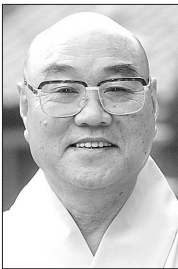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원로의원 월서스님 무주상 보시 실천

은사 금오스님 유지 계승...전 재산 ‘금오사상연구원’에 기탁
“모든 것 대중에 회향...승려라면 당연하고 당연한 일 아닌가”

원로의원 월서스님이 개인명의의 재산 전체를 재단법인 금오선 수행연구원에 기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스님(사지)은 지난 2008년 11월 은사인 금오(金烏) 대종사의 불교정화이념 및 수행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연구원에 흔쾌히 재산을 출연했다. 재단법인 금오선수행연구원은 정관 목적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행하고’라는 구절을 정확히 명기하여 종단과의 관계를 분명히 했다. 또한 금오대종사와 인연이 있는 법주사, 불국사, 금산사 등 3개 본사 주지 스님들이 당연적 이사가 되도록 규정해 재단법인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금오선수행연구원 이사장 조인을 맡고 있는 원로의원 월서스님은 “부처님과 은사 스님의 은혜로 출가사문으로 살았다”면서 “불교정화와 종단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한 은사 스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연구원을 설립하고 개인명의 재산을 헌납한 것”이라고 기탁 배경을 설명했다. 월서스님은 총무원에서 연초부



터 추진하고 있는 임척후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내(內) 출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무원이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을 당시 스님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출가해서 이런 저런 인연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을 경우, 그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종단과 전체 대중의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지난 4월26일 원로회의에서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천명했다.

월서스님은 “금오스님은 경허·만공·보월스님으로 내려오는 법맥(法脈)을 계승한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라면서 “평생 수행정진에만 뜻을 두고 사셨던 은사 스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그렇게 하는 것만이 부처님과 은사 스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출가자뿐 아니라 재가불자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대중을 위해 회향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로의원 월서스님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회향했지만, 또 다시 무언가 생긴다면 그것마저도 주저 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승려라면

당연하고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월서스님이 재산을 출연한 금오선수행연구원은 불교정화 당시 최선봉에서 대중을 이끌었던 금오스님의 수행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다.

금오선수행연구원은 정관에 △불교교리 연구와 포교활동을 통해 한국불교를 발전시켜 민족정신사회의 정화를 꾀하고 △국제불교교류를 통한 국제적 협동과 우의를 깊이하고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룩하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하고 △금오대종사의 정화이념 및 수행과 사상을 널리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주요사업에 대해 월서스님은 “국제포교 지원과 조계종단의 설립이념 전파, 한국불교전통문화 교류사업 및 금오문종의 수행 교육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오선수행연구원은 금오스님의 정화사상을 조명하는 첫 번째 학술세미나를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또 1970년대 월산스님이 발간한 <금오집(金烏集)>을 수정 보완하여 <꽃이 지니 바람이 부네>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성수 기자

포교사단 ‘새터민 불자’ 수계법회

포교사단 서울·경기지역단 통일2팀(팀장 홍성란)은 지난 9월19일 안성 하나원에서 새터민 불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봉행했다. <사지> 새터민 불자들의 남한 사회 정착을 돕고 안정적으로 실행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이날 수계식에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 안성시삼엄연합회 사



무총장 세준스님을 비롯해 새터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계식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오계를 수지하고 생활 속에서 계를 지키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계사로 나선 각현스님은 수계법문

을 통해 수계의 의미를 강조한 뒤, “기회의 땅 대한민국에서 첫 걸음을 내딛고 오계를 잘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엄태규 기자 che11@bulgyo.com

담화문

- 제15대 중앙종회의원선거에 즈음하여 -

오는 10월 28일(목)은 우리 종단의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관인 중앙종회를 구성하는 제15대 중앙종회의원을 전 교구에서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중앙종회의원은 각 개인이 소속 교구의 사부대중을 대표하며 종단의 근간인 종헌과 종법을 제·개정하고 종단의 주요 정책과 중무행정을 논의하고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자 이외에도 수많은 중도들이 관심을 있게 지켜보고 있음은 물론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선거 전과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제33대 총무원장선거가 종단 선거상 유례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전례가 있어 금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도들과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청정한 승가의 전통을 유지하고 계승하여 종단의 위의를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이며, 중도가 신뢰하고 국민이 모범으로 삼는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중공의를 함의적으로 수렴하여 승가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종단 발전을 위한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무원 호법부는 금번 제15대 중앙종회의원선거가 지난 제33대 총무원장선거 이후 정착되어가는 종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전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종단의 각급 선거에서 ‘금품’과 ‘음해’라는 부적절한 연상이 떠오르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중법을 집행할 것입니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15조는 공식적인 선거기간으로 후보자 등록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후보 예정자는 등록일전까지는 어떠한 선거 운동도 불가합니다. 선거기간 이전에 사찰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거나 각종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는 분명한 위법행위로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가 초기에 과열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제23조에는 중앙종회의원 후보자는 1) 비승가적 행위(금품수수 및 물품 제공, 타 후보자 인신공격 행위 등) 2) 각종 집회의 개최 3) 기부의 권유 및 요구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는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일체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및 종단의 공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중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최대한 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품 제공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선거당락과 관계 없이 금품 제공자와 수령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승려법 제49조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자’는 공권정지 3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급 선거때마다 익명을 빌미로 출마 예상자나 입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승가의 화합을 깨고 선거를 과열시키는 전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음해 행위는 익명

일지라도 작성자와 배포자 모두 끝까지 규명하여 선거 이후라도 반드시 징계에 회부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는 총무원 호법부의 적발과 징계만으로 정착될 수 없습니다. 유권자의 주인의식과 공명선거 정착이라는 중도들의 관심이 있어야만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불교계 고유의 선거문화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금번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사례를 발견하거나 의심될 경우 언제든지 총무원 호법부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중법 집행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승가의 위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종족 타마의 장으로서 종단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하고 튼튼한 출발점이 되도록 중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출마를 준비하는 스님들도 투명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제15대 중앙종회가 원만히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중법 준수에 솔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관련 위법사례 제보



총무원 호법부

TEL : 02)2011-1834~8 / FAX : 02)735-0613

E-MAIL : 1998060801@buddhism.or.kr

※ 제보는 특정한 양식이나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 위법사례 제보자의 신원은 그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불기 2554(2010)년 10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상운